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 강화

도, 행사장·종교·요양시설 등 대상 오늘부터
운영 현황 점검 실시...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전북도가 지난해 7월 실시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의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명령을 고시한다.
도는 최근 수도권 방문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며, 다수가 생활하는 집단시설로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한 행정명령을 29일부터 발령한다.
방역관리자를 상시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행사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이다.
상시로 지정해야 되는 기관·사업장·단체는 정·부 2명을 지정해 1명이 부재 시에도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관계 부서와 협의 통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에 대해 강력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 방역당국은 이번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단속과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시설과 단체에서 방역관리자가 정상적으로 지정되고 역할을 수행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크게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행정 조치 강화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그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공감해서 자율과 책임을 통한 방역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1호 방조제 관광명소화 제3차 제안 공고 9월 10일까지

대상자는 공사 중인 국립새만금근린 박물관 인접지역 약 8만1,322㎡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숙박시설, 공연장, 테마파크, 공공 편익시설 등을 제안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10월 중에 종합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상을 거쳐 11월 초에 사업시행자를 확정할 계획이 다. /유호상 기자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결과, 알맹이 빠진 맹탕”

도의회 문건위 “댐 운영 미흡 등 여러 요인 나열 핵심적 원인 밝히지 않아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표현” 지적



전북도의회는 28일 지난해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지역 수해와 관련, “환경부가 전날 최종 보고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결과는 ‘알맹이 빠진 맹탕’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도의회는 또,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가는 댐 부실운영이 수해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액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수해 원인을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의 정비관리 부족 등 여러 요인을 단순 나열했을 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표현해 ‘물타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와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

공사 책임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 ‘맹탕 보고서’라는 것이다.
모의 시나리오의 신뢰성 문제, 섬진강댐 보조 여수로 역할 미 언급, 동화댐 방류량 누락, 한국농어촌공사 미참여 등 최종 보고 내용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수해의 주된 원인은 수위 조절 실패, 예비 방류 미실시·과다 방류 등이다”며 “이번 수해는 환경부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관리 주체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인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 금액을 전액 국비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율러 “정부는 직접적 수해 원인이 된 급격한 방류 등 댐 부실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원인 규명과 배상 절차에

추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전북도의회는 피해주민들을 두 번 욕되게 이번 용역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용역보고서에 수해의 근본적 원인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보완조치를 할때까지 도의회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 우선 협상자 선정

총 투자비 1조원 규모 제안 ‘웨스턴리버컨소시엄’

대상자는 공사 중인 국립새만금근린 박물관 인접지역 약 8만1,322㎡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숙박시설, 공연장, 테마파크, 공공 편익시설 등을 제안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10월 중에 종합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상을 거쳐 11월 초에 사업시행자를 확정할 계획이 다. /유호상 기자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은 기초·지반 공사에 전문성을 갖춘 케이에이치엔티(주)를 대표사로 (주)한화건설과 한화솔루션(주), 대한토지신탁(주) (주)에스씨 등 10개사로 구성됐다.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은 새만금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5km 길이의 관광수로, 400세대 규모의 커널타운을 조성하고, 에니멀파크, 그린파크 등 체험시설과 54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통해 연간 500만 명이 찾는 자족적 친환경 관광정주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제안했다.



웨스턴리버컨소시엄 조감도

양창모 청장은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의 투자는 새만금이 치유와 원,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명품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

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협약체결과 새만금사업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